

---

## 일반논문

---

[www.kci.go.kr](http://www.kci.go.kr)



## 損窩 崔錫恒의 聯句詩 研究

— 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유 명 석\*

### [초 록]

조선시대 문인들의 交遊는 文學, 그 가운데 대체로 漢詩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벗과 함께 술이나 유람을 즐기거나 혹은 어떠한 일로 헤어짐을 맞이할 때마다 作詩를 통한 교감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文人들의 교감활동 중 하나가 詩會였고 활용된 漢詩의 詩體 중 하나가 바로 聯句詩이다.

少論의 명문 가문 출신인 損窩 崔錫恒(1654~1724)은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했으며 少論四大臣으로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損窩는 1680년 27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관료 문인이었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해나가며 少論의 여러 명사들과 交遊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詩會가 있었다. 그의 문집 곳곳에 남은 작품들을 통해 그의 교유가 詩會를 중심으로 하였고, 詩會에서 창작된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소론, 손와, 최석항, 시회, 교유, 연구시

Soron (少論), Sonwa (損窩), Choi Seok-hang (崔錫恒), Poetry Clubs (詩會), Relationship (交遊), Successive Lines of Verse (聯句詩)

작품 가운데 하나가 聯句詩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글은 損窩의 문집에서 확인되는 詩會의 흔적과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聯句詩에 대해 살폈다. 이 연구는 損窩의 詩會와 聯句詩의 관계, 그리고 聯句詩의 양상을 살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損窩에게 聯句詩가 지니는 의의를 확인하여 그의 聯句詩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들어가며

『論語』 「顏淵」편을 보면 ‘以文會友’라는 말이 있다. 『논어』는 그 옛날부터 문인들에게 학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자 기본적인 필독서였고, 儒家 理念을 國是로 했던 朝鮮에 이르게 되면 『論語』의 매 구절은 조선의 문인들의 생활과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모범으로 작용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 ‘군자는 文으로 벗을 모은다’는 말 역시 조선의 문인이 벗과 사귀는 데에 있어 길잡이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문인들 간의 교유는 文學, 그 가운데 대체로 漢詩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벗과 함께 술이나 유람을 즐기거나 혹은 어떠한 일로 헤어짐을 마주할 때마다 作詩를 통한 교감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문인들의 교감활동 중 하나가 詩會였고 활용된 한시의 詩體 가운데 하나가 바로 聯句詩였다.

損窩 崔錫恒(1654-1724)의 본관은 全州, 자는 汝久, 호는 損窩이며 증조부는 영흥부사 崔起南, 조부는 병자호란 당시 和議論을 펼쳤던 崔鳴吉이고, 부친은 完陵君 崔後亮이다. 仲兄인 明谷 崔錫鼎은 西人이 老論과 少論으로 분당이 된 이후 소론의 영수로서 영의정을 10차례나 역임했던 인물이다. 소론의 명문 가문 출신인 손와는 그 역시도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했으며 柳鳳輝·李光佐·趙泰喬와 함께 景宗代의 소론4대신으로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이

렇듯 손와는 소론계열 안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으며 문학적, 문학사적으로도 그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景宗實錄』에 수록된 손와의 <sup>1)</sup> 줄기를 보면 그는 문학적 역량보다는 정치적 수완이 있었던 인물로 평가된 듯하며, 손자 崔昌億이 쓴 손와의 행장 서두에는 문학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학문에 두각을 나타냈다가보다는 몸은 병약했으나 끈기와 노력이 그의 특징이었다는 내용<sup>2)</sup>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의 행장에는 중형 최석정이 손와의 시를 두고 ‘참으로 현달한 사람의 시’(眞達人之詩)라고 평가한 일화<sup>3)</sup>가 소개되어 있으며, 최석항의 仲兄인 崔錫鼎과 조카 崔昌大는 당대에 文學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고, 최석항 역시 詩文에 뛰어났지만 그 사이에서 과시하지 않았으며, 그의 上疏文은 明暢하고 辭理를 모두 갖추었고 漢詩도 流麗하고 精緻하였는데, 挽詩와 驢行詩가 人口에 膾炙되어 文望이 있었다고 하였다.<sup>4)</sup> 물론 손자가 쓴 행장이기 때문에

- 1) 『景宗實錄』 권14, 경종 4년 2월 24일. “形貌矮小, 而精神內蘊. 按外藩, 以才局稱, 平生處事, 不露圭角. 常戒後進曰, 毋以細事與人相較. 如此則動致顛躓, 不能做國事也.”
- 2) 崔昌億, 『損窩遺稿』, 「損窩先生紀實」, <行狀>. “以顯宗甲午八月初六日酉時生, 清羸善病. 至十餘歲, 猶不授書, 而公內弟安公某, 與公同年生, 才名甚早, 連登泮庠, 安夫人深歎羨之, 完陵公笑曰, 彼雖才藝早成, 氣象不過一措大, 終必不達, 吾兒大器也. 其後安公年老窮不第, 而公果貴, 公晚始就學, 勤苦刻厲, 夜以繼日, 常坐於一隅, 終不起, 至忘溺便, 袴爲之腐. 於是詞學日進, 述作精工. 癸丑, 丁安夫人憂, 制除, 益自督課, 以早失怙而科不逮親爲恨, 親友或有先登第而來訪者, 閉戶不與之語, 讀書不輟.”
- 3) 崔昌億, 『損窩遺稿』, 「損窩先生紀實」, <行狀>. “己未, 中進士, 完陵公時守清風, 公省觀舟行, 有詩曰, 琴書行李隨緣客, 雲水生涯得意鷗, 文貞公見之歎曰, 音韻流暢, 意象無滯礙, 眞達者之詩也.”
- 4) 崔昌億, 『損窩遺稿』, 「損窩先生紀實」, <行狀>. “不爲文學詞章, 而經史百家, 用工勤篤. 奏笥明暢, 辭理俱到, 詩亦流麗精緻. 文貞公方以文章服一世, 而其子副學公有盛名, 文學之士, 咸趨仰之. 公居其間, 未嘗矜銜誇詡, 而疏章之作, 驢挽之篇, 往往膾炙人口, 文苑之望, 世皆推許.”

객관적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그는 문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손와의 행적이 정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유로 그의 문학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당시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문인이었다. 손와 역시 관료이기 이전에 문인이었으며 1680년 27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관료 문인이었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해나가며 소론의 여러 명사들과 교유를 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詩會가 있었다. 자신의 문집을 남기지 말라는 손와의 遺命<sup>5)</sup> 탓에 현재 전하는 문집은 소략한 편이다. 현전하는 손와의 문집에 남은 시문은 대체로 교유를 중심으로 하는 送詩나 贈詩, 次韻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 남은 작품들을 통해 그의 교유가 詩會를 중심으로 하였고, 사회에서 창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가 聯句詩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본고는 손와의 문집에서 확인되는 사회의 흔적과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시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손와가 가졌던 사회와 연구시의 관계, 그리고 그의 연구시를 살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구시가 지니는 의의까지 살핌으로써 손와라는 인물의 의식세계를 밝혀내어 문학 외적인 부분까지 규명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損窩와 詩會, 그리고 聯句詩

詩會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모여 詩를 짓는 문인 간의 예술적 교류활동으로 思想的·文學的 취향을 공유하는 ‘열린 詩 짓기 놀이’나

5) 崔昌億, 『損窩遺稿』, 「損窩先生紀實」, <行狀>. “平生所著文字, 隨手散逸, 未嘗收錄, 遺命勿刊文集, 勿豎神道碑, 勿請謚, 蓋公素志然也.”

‘知的 遊戲의 場’으로 볼 수 있다.<sup>6)</sup>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고정적인 구성원이 존재했으며 활동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조직적이었던 詩社와는 달리 시회는 사대부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고급 여가 수단이었다. 시회는 마음 맞는 친구와 唱酬하거나, 世事를 잊기 위해 아름다운 공간을 유람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가진 모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시회 활동이 있고 나면 詩帖을 만들어서 당시를 기념하거나 기억하고자 하였다.<sup>7)</sup> 시회 이후의 시첩 제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 간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지만, 시첩을 만들게 되면 시회에서 지은 시 작품뿐만 아니라 시회의 배경과 의의·날짜·참여자 등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시를 회상하고 지난날의 雅趣를 기억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손와에게 시회는 특별한 활동이었다. 현재 전하는 손와의 문집 『손와유고』는 13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와가 71세의 수를 누렸던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량이다. 이 가운데 권12 「雜著」에 수록된 4편의 詩帖跋文을 통해 손와가 시회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손와유고』 소재 시첩발문

연번	제목	시기	배경	참여자	비고
1	壽席詩帖跋	1704, 1707, 1712	母親의 壽宴	崔錫鼎, 崔昌大, 元命汝, 李彥綱	
2	丙寅唱酬詩帖跋	1686	벗과의 交遊	趙儀徵	
3	驢行詩帖跋	1700, 1703	送別	李東郁, 尹德駿	
4	仙樓酬唱詩帖跋	1705	遊覽	鄭恢	

6) 강필임(2016), 『시회의 탄생』, 한길사, pp. 38-39.

7) 신민섭(2019), 「조선시대 詩會 序跋 연구 — 詩軸·詩帖·詩卷을 대상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2-3.

『손와유고』에는 총 5편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시첩 발문은 4편이다. 문집의 양이 방대하지 않아 수록된 발문이 5편뿐이지만 대부분이 시첩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손와가 시회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직접 시첩을 제작할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억하고 또 후대에 전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발문만 전할 뿐 시첩은 전하지 않아 수록된 시작품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sup>8)</sup> 발문의 내용을 통해 시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친의 壽宴, 벗과의 교유를 위한 시 酬唱, 外職에 부임하는 情況에서의 送別, 遊覽 등 다양하다. 또한 참여 인물의 수도 적게는 1인부터 많게는 4인까지 상이한데, 두 번째 시첩인 「丙寅唱酬詩帖跋」은 趙儀徵과 서찰을 통해 주고받은 시를 모아 만들었고<sup>9)</sup> 네 번째 시첩인 <仙樓酬唱詩跋>은 鄭俠과의 유람에서 창작한 시를 모은 것으로 참여자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시회라는 모임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sup>10)</sup> 그러나 이 네 편의 시첩 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의 再生과 記憶이다.

8) <丙寅唱酬詩帖跋>에 “오가며 수창한 것이 거의 일곱 수가 되었다(往復酬唱, 幾至七疊).”라는 언급이 있고, <仙樓酬唱詩跋>에는 “시를 창화하여 율시와 절구 십여 수를 지었다(有唱斯和, 賦近體絕句並十餘首).”라는 말을 통해 각각의 시첩에 수록되었을 시의 수량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손와유고』 권2에 수록된 <次韻趙祥甫>와 권4의 <降仙樓 書贈鄭使君可叔>는 각각 <丙寅唱酬詩帖跋>, 「仙樓酬唱詩跋」과 관련된 시로 보이나 이 두 작품의 시첩 수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9) 崔錫恒, 『損窩遺稿』 卷12, 「跋」, <丙寅唱酬詩帖跋>: “曾在丙寅春, 余以言獲謫, 閑居澗園中, 趙友祥甫病裡寄詩, 要余和之, 厚意不可孤也. 往復酬唱, 幾至七疊, 藏之巾衍.”

10) 이 두 경우는 시회라고 하기에는 참여자의 수가 2인뿐이라는 점에서 시회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회의 기본 속성은 사교와 당시에 대한 기억이다. 또한 손와가 이 두 시첩을 엮은 것 역시 본인 스스로 당시의 상황을 시회로 규정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丙寅唱酬詩帖跋>과 <仙樓酬唱詩跋> 두 작품 모두 시회의 결과물로 규정하고자 한다.



明谷(崔錫鼎)과 그 아들(崔昌大) 두 세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元命汝와 李季心도 벌써 천고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마침내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쓴다.<sup>11)</sup>

손가락을 꼽아 수십 년간을 헤아려 보니 덧없는 인생의 생사는 山河에 가린 듯 막막하니 하나의 시첩으로 만들고 마침내 몇 줄을 적어서 鍾子期和 山陽의 감정을 부치노라.<sup>12)</sup>

子文과 邦瑞가 光教에서 나란히 말을 다고 駒城의 객관으로 나를 찾아와 밤에 촛불을 밝히고 회포를 이야기하며 시를 지어 이별의 정을 나누었으니, 이 뜻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 거의 다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옛 시편을 더듬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sup>13)</sup>

옛 유람을 추억함에 황홀하여 한바탕 꿈만 같다. 지난날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일을 써서 기억하노라.<sup>14)</sup>

이 글들은 각 시첩의 마지막 부분으로 손와가 시첩을 제작하게 된 원인이다. 손와는 당시 함께했던 인물들을 거론하고 당시의 즐거움 혹은 기쁨을 떠올리며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 
- 11) 崔錫恒, 『損窩遺稿』卷12, 「跋」, <壽席詩帖跋>. “人子追慕之情, 庸有既乎. 況如明谷兩世, 次第奄忽, 元令李台, 已作千古, 遂掩卷揮淚而書之.”
  - 12) 崔錫恒, 『損窩遺稿』卷12, 「跋」, <丙寅唱酬詩帖跋>. “屈指數十年間, 浮生存沒, 漠若河山, 粧成一帖, 遂書數行, 以寓子期山陽之感.”
  - 13) 崔錫恒, 『損窩遺稿』卷12, 「跋」, <臚行詩帖跋>. “如子文, 邦瑞, 自光教並轡來訪於駒城客館, 秉燭論懷, 留詩爲別, 此意何可忘也. 居然二十年間, 零落殆盡, 安得不撫跡潸然.”
  - 14) 崔錫恒, 『損窩遺稿』卷12, 「跋」, <仙樓酬唱詩跋>. “回思舊遊, 恍如一夢, 向來賞心愉快之事, 其可得耶. 書此而識之.”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 시첩을 만든다는 말을 덧붙였다. 손와는 자신의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는 유명을 남길 정도로 문집 간행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으나 시첩만큼은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발문을 붙였다. 즉 손와에게 시회는 시첩으로 만들어 보관할 만큼 삶의 값진 기억들이었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이다.

시첩발문 이외에 한시작품을 통해서도 손와가 시회를 가졌던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

<표 2> 시회를 유추할 수 있는 『損窩遺稿』 소재 시작품 목록

연번	제목	권수	형식	수량	시기 (추정)	참여자	비고
1	張麟卿 植 宅會話修契	권2	七律	1	1685	張植	
2	城東餞席聯句 時趙東岡相愚以書狀官赴燕 仲氏與李副學畬· 李文進吾同會聯句	권2	七律 (聯句)	1	1685	趙相愚, 崔錫鼎, 趙相燦, 李塾, 李畬,	
3	李子文餞席 十二月初三 吳貫之·洪九言同會	권2	七律	1	1688	李東郁, 吳道一, 洪受疇	
4	酒席號韻 送李子文安興之行 十一月十九日 徐季容·朴汝厚·李季章· 柳悠遠·李達天同會 竟夕而罷 春卿有故不與焉	권2	七律	1	1690	李東郁, 徐季容(未詳), 朴泰淳, 李寅燁, 柳悠遠(未詳), 李達天(未詳)	
5	小陵宅 夜坐口號 壬申正月六日 會仲氏子文同賦	권3	七律	1	1692	崔錫鼎, 李東郁	
6	遊中興洞 三月二十二日 與仲氏約會李益之·朴仙舟 不期而會 相與彈碁命酒 盡日而還	권3	七律	1	1693	崔錫鼎, 李夏英, 朴仙舟(未詳)	
7	明谷夜話 十四日 會洪九言·李得甫· 李文叔做話	권3	七律	1	1693	洪受疇, 李德成, 李寅炳	

연번	제목	권수	형식	수량	시기 (추정)	참여자	비고
8	西原村舍 次韵贈別刑判李季心 金垣卿·李泰卿 不期而會	권3	七律	1	1697	李彦綱, 金輔臣, 李東亨	
9	宿道峰齊室聯句 七月八日 余與魯望·春卿·集中· 君敬諸人 見士元會葬 歸路過此	권5	五律 (聯句)	1	1689	徐宗泰, 權斗寅, 李寅煥, 柳成運, 權持	

<표 2>는 『손와유고』에 수록된 한시 작품들 가운데 시회에서 창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만을 선별한 것이다. 시가 창작된 배경과 시기, 참여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목에 細字로 적힌 내용까지 부연하였다. 각 시의 제목을 보면 ‘모임’을 의미하는 ‘會’字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이름을 적고 ‘同賦’(함께 시를 짓다.)나 ‘贈別’(이별하며 주다.)이라는 말을 통해 그들과 함께 창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작품들은 시첩의 제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시회에서 창작된 작품들인 것이다. 특히 한시 창작의 필수 動因으로 볼 수 있는 술(酒)이 곁들여진 宴席과 遊覽을 배경으로 한 작품<sup>15)</sup>도 있어 시회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회를 통한 시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첩발문과 한시 작품을 아울러 살펴보면 손와는 1685년부터 1712년까지 대략 30여 년 동안 꾸준히 시회를 가졌다는 것을 볼 때 기록으로 남지 않은 시회들도 존재할

15) 1689년 8월 손와는 伯兄 崔錫晉, 조카 崔昌大와 함께 三角山 重興寺 등을 유람하였는데 그때의 감회가 담긴 시가 <秋日游重興 八月二十八日 陪伯氏携昌大訪重興寺留宿 翌日 過文殊菴 由蕩春臺而還>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損窩遺稿』 권2에 6수 연작, 권5에 2수 연작의 형태로 각각 수록이 되어있다. 당시 창작한 손와의 시와 다른 인물들의 시작품도 부기해놓았는데, 권2의 해당 작품에는 큰형 최석진의 시 1수와 조카 최창대의 시 6수, 권5의 해당 작품에는 최석진의 시 1수, 최창대의 시 2수가 부기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람과 시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손와와 시회를 함께했던 인물들은 친지인 仲兄 崔錫鼎, 조카 崔昌大, 姻戚 李寅燁이 있으며 同黨인 少論에서 활약했던 趙相愚, 吳道一, 洪受疇, 徐宗泰 등이다.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물들까지 포함한다면 손와가 시회에서 교유한 인물들의 편폭은 더욱 넓어진다. 이렇듯 손와는 비정기적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시회를 통해 여러 문인들과 교유활동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손와의 시회와 함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聯句詩의 창작이다. <城東 餞席聯句>, <宿道峰齋室聯句> 두 작품은 시회에서 창작된 연구시로 보이는데, 연구시는 하나의 시를 여러 사람이 짓는다는 점에서 교유가 바탕이 된다. 그렇다면 시회와 연구시의 창작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시회는 문인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모여 즐기는 자리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창작은 시회의 흥을 돋우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 시 창작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활용되었는데 각자가 韻자를 뽑아서 작시하는 分韻, 같은 제목으로 작시하는 競作, 전원이 집단으로 창작하는 聯句, 다른 사람이 운자를 부르는 대로 시를 짓는 呼韻, 특정한 글자를 딴 사람이 부르는 대로 시 속에 사용하여 짓는 呼字 등이 있었다.<sup>16)</sup> 이 가운데 연구시는 엄격하고 정형화된 한시의 규칙을 지켜가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매끄럽게 창작해야 했기 때문에 문인들에게 까다로운 詩體로 여겨졌다.<sup>17)</sup> 그러나 여러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 한 편의 시를

16) 심경호(2009),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14집, 한국국학진흥원, p. 425.

17) 尹國馨의 『聞韶漫錄』에는 작법의 난해함으로 인해 연구를 창작하는 데에 난감해하는 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己丑夏間, 苦早有暴雨, 余夜喜之, 令作聯句, 以不知作句辭之, 教以任汝做出, 字之多少, 不須拘也. 則卽吟出.) 南臯의 『時庵集』에 수록된 「檠燈聯句詩序」에는 연구시 창작의 순서에 있어서 남고 자신이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余不能詩, 得聯名於三君子之末, 亦幸矣.) 이런 점은 연구시가 유희적 속성을 지닌다고 하지만 창작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완성해냈을 경우 느끼는 문학적 카타르시스와 성취감은 상당했기 때문에 연구시의 창작은 당시 문인들의 문자 유희 활동 중에서도 상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말하길, “오늘의 모임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즐거우면 전할 것을 생각해야 하니 이를 전할 방법은 시를 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의 규칙은 매우 많지만韻을 뽑아서 시구를 연잇는 것만 한 것이 없으니 운을 뽑으면 그 일이 공정하고 구를 연이으면 그 情이 통하게 됩니다.”라고 하니, 모두들 “좋다.”라고 하고 이에 선창하고 번갈아 화답하였다.<sup>18)</sup>

任聖周(1711-1788)가 쓴 이 序文은 연구시의 창작이 지닌 기능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을 통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당시의 문인들은 모임을 갖게 되면 기록으로 남겨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욕구였다. 둘째, 그 기록의 방식은 詩가 가장 좋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합당한 詩體는 여러 사람들의 情이 통할 수 있게 하는 聯句詩임을 당시 사람들이 동의했다. 당시 문인들은 비록 창작이 쉽지는 않으나 하나의 韻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즉흥적으로 시를 짓는 연구시가 지닌 강한 情通의 성격<sup>19)</sup>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손와 역시 시회에 참여한 인물들과 자연스레 문학적 유희 활동인 作詩를 하였을 것이고 通情을 도모하기에 가장 합당한 시체인 연구시를 창작함으로써 그 흥취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8) 任聖周, 『鹿門集』 卷20, 「序」, <社峯聯句序>. “余遂倡於衆曰, 今日之會誠樂矣. 樂則思所以傳, 傳之道, 舍詩奚以哉. 詩之規固多端, 而莫如括其韻而聯其句, 括韻則其事公, 聯句則其情通, 咸曰善, 於是更唱迭和.”

19) 박용만(2004), 「강화학파의 연구시에 관한 고찰」, 『한국한시학회』 12집, 한국한시학회, p. 417.

### 3. 損窩 聯句詩의 樣相

李瀛은 『星湖僊說』에서 연구시의 연원은 漢代 <栢梁臺詩>로 보며 韓愈에게서 다양한 연구시의 창작방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sup>20)</sup> 연구시는 2인 이상의 복수작자가 한 자리에 모여 창작한 양식이라는 점에서 현장감과 속도감, 직접성을 보장하는 독특한 생산 방식<sup>21)</sup>을 지니기 때문에 문인들 사이에서 교유의 한 방편으로 활용된 시체였다. 놀이의 형태를 띤 유희성에 주목한 시체라는 점에서 작품성이 여타의 시체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압운과 대우를 맞추면서 의미상의 연결까지 유념해야 하고 이를 지켜보는 타자의 존재까지도 의식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지어진다<sup>22)</sup>는 점에서 개개인이 가진 문학적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십분 발휘해야 하는 시체이기도 하다.

손와의 문집인 『損窩遺稿』는 총 13권과 紀實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시집은 권1~권5까지이다. 『손와유고』 소재 한시를 헤아려 보면 총 676제 825수가 수록되어 있다. 손와의 시 가운데 교유와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sup>23)</sup> 연구시는 5제 5수로 상대적으로 적은

20) 李瀛, 『星湖僊說』 卷30, 「詩文門」, <聯句>. “人謂聯句, 古無此體, 退之斬新開闢. 或曰陶謝有是矣, 李杜有是矣, 又推而上之, 則漢栢梁臺詩是也. 余謂栢梁詩未有聯句之名, 至宋孝武華林都亭水曲聯句效栢梁, 梁武帝清晨殿聯句亦云栢梁體, 則後人已指之謂聯句也. 且退之所作詩令多端, 或多或寡, 隨得輒錄, 則優劣判矣, 會合聯句是也. 徹止於二聯, 籍止於五聯, 又或先占一句, 他人屬對, 則巧拙見矣. 城南聯句是也, 此實退之創始.”

21) 이미진(2019), 「聯句詩의 창작 방식과 배경 고찰 — 謙齋 趙泰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4집, 동양고전학회, p. 249.

22) 이미진(2019), p. 271.

23) 『손와유고』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 연구시를 제외하고 교유시로 볼 수 있는 것이 159제 200수(寄詩 11제 24수, 送詩 56제 59수, 贈別試 19제 20수, 贈與詩 27제 31수, 次韻詩 4제 62수, 用韻詩 3제 5수, 和答詩 2제 2수)로 전체 수량의 25%

분량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문인들의 연구시 창작은 빈번한 일이었는데, 집안 내의 친지인 仲兄 최석정은 11제 12수, 조카 최창대는 5제 5수,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당색을 같이했던 소론의 주요 인물인 南龍翼은 27제 32수, 吳道一은 18제 18수, 趙泰億은 137제 137수<sup>24)</sup>의 연구시를 문집에 남겼다. 다른 문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연구시를 남긴 조태억을 제외하면 남용익과 오도일의 연구시 수량도 아주 많은 수량은 아니며, 최석정은 12수, 최창대는 5수를 남긴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손와의 연구시를 무조건적으로 적은 양이라고 단정하기에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확인 가능한 손와의 연구시는 그 수량이 제한적이지만 각각의 시가 지닌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모든 연구시를 작품을 거론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把酒登臨江上亭 汝久	술 가지고 강가 정자에 올라보니
秋風落葉滿空庭 大妹(叔)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 빈 뜰에 가득한데
繁華舊迹渾無處 汝久	번화했던 옛 자취는 아득히 사라졌으니
塵夢人間幾醉醒 大妹(叔) <sup>25)</sup>	꿈같은 인간 세상에서 몇 번이나 취하고 깨었었나

에 육박하는 양이다. 또한 관계성에 의해 창작되는 만시도 219제 233수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연구시와 함께 교유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손와의 교유양상을 확인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24) 이미진의 겹재 조태억 연구시와 창작 방법에 대한 연구[이미진(2019)], 김묘정의 곤륜 최창대의 교유시와 함께 연구시를 살핀 연구, 최석정과 오도일, 조태억의 연구시를 함께 살핀 연구[김묘정(2019)], 「곤륜 최창대의 교유시 연구」, 『인문논총』 76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17세기 소론계열 지식인들의 연구시 고찰」, 『석당논총』 78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를 참고하면 본고에서 언급한 인물들의 연구시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5) 崔錫恒, 『損窩遺稿』 卷1, <戴恩亭聯句>.

이 시는 제목 옆에 細字로 丁卯라는 글자가 적혀있어 1687년 손와의 나이 34세에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연구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유일한 절구 작품이다. 문집에는 이 시를 연구한 사람이 ‘大妹’(여동생)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손와와 교유했던 俞集一(1653-1724)의 字인 大叔의 오자가 아닌가 한다.<sup>26)</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작품을 손와가 유집일과 연구한 시로 상정하여 살펴보겠다.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유집일과 한강 근처의 戴恩亭에서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손와가 유집일이 번갈아 1구·3구와 2구·4구를 지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2인이 연구시를 지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分聯방식이다. 1구와 2구를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주며 동시에 ‘秋風’, ‘落葉’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은정에서의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어 3구와 4구에서는 대은정의 화려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꿈같은 인간 세상에서 몇 번이나 취하고 깨었나’라고 말하며 인간사의 허무함과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쓸쓸함과 무상감이 위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집일의 정치적 상황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1687년 羅良佐가 자신의 스승인 尹宣擧의 신원 상소를 올린 일로 유배를 당하였는데 유집일은 나양좌를 변론하다가 숙종에게 배척을 받아 削奪官職되고 門外出送되었다.<sup>27)</sup> 그러다 그해 11월에 지평으로 복

26) 『고전번역DB』에 있는 「손와유고의 해제」(김경희, 2000)에서도 볼 수 있듯 『손와유고』는 필사과정에서 적잖은 오탈자가 보이므로 유의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27) 『肅宗實錄』, 숙종 13년 3월 21일. “持平俞集一·李益壽, 竝姑先遞差. 又下備忘曰, 噫. 今此良佐輩, 醜詆大老之疏, 實是斯文之大變, 則凡在三司者, 所當明辨痛斥, 同聲請罪之不暇, 而持平俞集一·李益壽等, 徒知私黨之庇護, 不恤公議之至嚴, 狙擊異己, 挺身營救, 抑揚彼此, 情態盡露, 其所謂黨賊背賢, 何等罪累. 而加



직되었는데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유집일은 자신이 연구한 2구와 4구에서 쓸쓸하고 허망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와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집일과 함께 대운정을 찾아 이 시를 지으며 위로를 도모했던 것이다.

小集東城卽別筵 汝和	성 동쪽에 조촐히 모여 전별연 마련하였으니
況兼諸友共聯翩 叔平	더구나 여러 벗들과 만났구나
中年契闊遙相憶 汝久	연중에는 만나지 못해 그리워했으니
半日團圓豈偶然 進吾	만나절의 단란한 자리 어찌 우연이겠나
園子長携花縣宰 治甫	동산에서 화현의 수령을 오래도록 붙잡고
霜臺官傍玉堂仙	사헌부 관리 옆에 옥당의 신선 있는데
關河萬里驅車路 子直	산 넘고 물 건너 만릿길 수레 몰고 떠나면
蘭室盃樽夢幾牽 汝和 <sup>28)</sup>	꿈속에서 난실의 술자리로 얼마나 이끌려 오려나

이 시는 제목에 細字로 “時趙東岡相愚以書狀官赴燕, 仲氏與李副學 畬·李文進吾同會聯句”라는 내용이 달려있어 趙相愚(1640-1718)가 書狀官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을 때 仲兄 최석정이 부제학 李畬(1645-1718), 李墩(1642-1713)과 모여 지은 연구시임을 알 수 있다. 문집을 보면 이 시의 바로 다음에 <次韻趙子直赴燕>이라는 작품이 있어 조상우가 서장관에 임명되었던 것은 맞는 듯하나 『肅宗實錄』과 『承政院日記』, 조상우의 謚狀을 살펴봐도 그가 서장관의 자격으로 연경에 간 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다. 아마도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 조상우의 서장관 임명은 취소가 된 듯하다.

이 시는 문집에 수록된 두 번째 연구시로 가장 많은 인물이 작시에

---

之於入地之賢師等語, 操切侵逼, 不遺餘力, 此正徒知有尹宣舉, 而不知有大老也. 未知大老有何得罪於此輩, 而媚嫉斥絕, 一至於斯耶. 良可痛惋. 俞集一·李益壽, 竝削奪官爵, 門外黜送.”

28) 崔錫恒, 『損窩遺稿』卷2, <城東餞席聯句>.

참여한 작품으로 시 제목에서 언급된 인물들 이외에 조상우의 동생인 趙相槩까지 총 6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지었다. 분련 방식을 보면 작시에 참여한 인원수가 많은 까닭에 한 사람당 한 구씩을 맡는 柏梁體로 시작했으나, 조상우가 6~7구를 짓고 최석정이 1구와 8구를 지으며 시를 변칙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사행을 앞둔 조상우를 위해 전별연을 열고 여러 벗이 참석하게 된 지극한 즐거움을 최석정 → 조상개 → 최석항 → 이돈이 차례로 이어 시상을 자연스레 연결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해후의 즐거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지만 조상우는 곧 떠나야 한다. 이별의 아쉬움으로 인해 조상우는 만리타향에서도 잠이 들면 난실에 모여 있을 벗들을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기울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이 시는 사행을 앞둔 조상우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해후의 즐거움과 작별의 아쉬움이 함께 드러난다.

嶺外一千里	산 너머 천리 먼 곳
洛陽三月春 光甫	낙양은 춘삼월일 테니
不禁花照眼	무수한 꽃은 눈에 가득하고
惟喜雨留人 汝和	단비는 사람을 붙잡겠지만
別恨傳盃細	이별의 시름에 잔 들이키고
詩愁剪燭頻 汝久	시 짓는 시름에 심지 자주 잘라내다가도
仙槎歸去路	사신 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應復憶楓宸 光甫 <sup>29)</sup>	분명 다시 임금을 떠올리겠지

이 시는 단순히 ‘聯句’라는 제목에 細字로 ‘乙丑’(1685년)이라는 글자만 있어 이 시가 지어질 때의 정확한 배경을 확인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7구에 ‘사신’을 의미하는 ‘仙槎’라는 시어가 사용되었고 연

29) 崔錫恒, 『損窩遺稿』卷5, <聯句>.

구에 참여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최석정이 1685년 陳奏使의 副使가 되어 연경에 다녀왔던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이 작품은 사행을 떠나게 될 최석정과 조지겸, 최석항이 모여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분련 방식을 보면 각 인원이 2구씩을 맡았고 조지겸만이 1~2구와 7~8구를 맡아 시상을 시작하고 닫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련 방식은 3인이 연구를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이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1~2구는 사행의 끝에 만나게 될 계절이 봄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비록 겨울에 출발하는 사행이지만 도착하고 나서 만나게 될 화사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어 최석정은 시상을 이어받아 ‘무수한 꽃’과 ‘단비’로 봄날의 따스함과 포근한 분위기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경련에서 손와는 타향에서 좋은 봄날을 맞이한다 해도 결국엔 가족·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객수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상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조지겸은 사행에서 돌아올 때면 그런 심적인 괴로움도 잊고 성상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신하로서의 직분을 상기시킨다. 이 시는 시상의 전개가 자연스러워 마치 한 사람이 지은 듯 매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春夜離杯動 昌憲  
 王程指玉河  
 楚人方利劍 汝和  
 燕市孰悲歌  
 驛路猶殘雪 汝久  
 灣江已碧波  
 此行計未小 叔車  
 專對問如何 昌憲<sup>30)</sup>

봄날 밤 이별주 마심은  
 옥하관 향해 사신 길 나가서이니  
 초나라 사람은 날카로운 칼 있지만  
 연나라 시장에서 누가 비가 부를까  
 역로에는 아직 눈 남아있지만  
 압록강엔 곧 봄물 흐르겠지  
 이 사행은 계책 작지 않으니  
 사신 응대 어찌할지 묻고 싶네

이 시는 밤에 술을 마시며 지은 연구시로 제목에 ‘丙寅’(1686년)이라는 세자로 된 내용이 달려있을 뿐 별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시는 바로 앞서 살펴본 시와 연관되는 작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최석정은 1685년 11월 24일 謝恩使兼陳奏使의 副使로 임명이 되었고<sup>31)</sup>, 1686년 1월 28일 청나라로 출발한 것<sup>32)</sup>을 알 수 있다. 즉 앞의 시는 최석정이 陳奏使의 副使에 임명된 직후에 지은 작품이고 이 시는 사행이 임박한 시점에 지은 작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면면을 보면 중형 최석정, 조카 최창현, 처남 申載(1690-?)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사행을 떠나기 직전에 집안의 친지들과 모인 편안한 자리에서 최석정의 사행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창작한 듯하다.

이 시는 최창현이 1구와 8구를 맡고, 최석정이 2~3구, 손와가 4~5구, 신곡이 6~7구를 맡아 지어졌다. 이러한 분련 방식도 4인이 8구의 연구시를 짓는 경우에 가장 갖게 활용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1구에서는 봄날 친지들이 모여 이별주를 드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하고 최석정이 시상을 이어받아 자신이 앞둔 사행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현재 청나라에 의해 중원이 장악당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날씨는 겨울이라 가는 길에는 눈이 남아있지만 곧 봄이 이를 것이라 말하며, 마지막에는 사신으로서 임무가 무겁겠지만 잘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세 수의 사행 관련 연구시를 통해 손와는 公務를 앞두고 시회를 갖고 연구시를 창작하여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30) 崔錫恒, 『損窩遺稿』 卷5, <夜飲聯句>.

31) 『承政院日記』 312책, 숙종 11년 11월 24일. “謝恩兼陳奏事, 右議政鄭載嵩爲上使, 崔錫鼎爲副使, 李擎爲書狀.”

32) 『承政院日記』 313책, 숙종 12년 1월 28일. “謝恩兼陳奏正使, 右議政鄭載嵩, 副使崔錫鼎, 書狀官李擎出去.”

하는 계기로 활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는 창작 배경과 활용의 측면에서 앞선 작품들과 결을 달리하는 작품이다.

霽月樓邊月	제월루 가에 달 떠있고
枕流堂下流 季章	침류당 아래로 물 흘러
名區仍勝會	명승지에서 좋은 모임 가지니
時節又新秋	계다가 시절은 초가을인데
不耐存亡痛	생사의 고통은 견디기 어렵고
更兼搖落愁 汝久	낙엽 지는 시름까지 느껴지며
夜深風露冷 君敬	밤 깊어 바람서리마저 차갑지만
嘯咏暫遲留 魯望 <sup>33)</sup>	시 읊으며 잠시 머물러 보네

이 시는 제목 옆에 細字로 “七月八日, 余與魯望·春卿·集中·君敬諸人, 見土元會葬, 歸路過此. 己巳年.”이라는 내용이 있어 1689년 徐宗泰·權斗寅·集中<sup>34)</sup>·權持과 함께 朴泰輔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봉산의 재실에서 머물며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박태보의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연구시를 짓게 된 배경에는 박태보가 己巳換局 당시 仁顯王后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에게 노여움을 사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다. 따라서 작시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소론 계열인 李寅燁, 權持, 徐宗泰이고, 尹澤과 柳成運도 장례식과 이 자리에는 참여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작시에서는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다.<sup>35)</sup> 이 시는 망자를 떠올리며 남은 자들 간에 마음을 다잡고 위로하는 모습

33) 崔錫恒, 『損窩遺稿』, 卷5, <宿道峰齋室聯句>.

34) 集中은 字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를 사용한 인물은 찾을 수가 없다. 아마도 尹拯의 제자로 소론의 인물이었던 柳成運(1651-1710)의 자인 ‘集仲’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35)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윤택과 유성운은 연구시 창작에 어려움을 느껴 빠졌거나 감정적으로 연구시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에 비해 同黨의 인물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sup>36)</sup>

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2구는 제월루와 침류당의 풍경, 3~4구는 좋은 계절에 걸맞는 좋은 모임에 대한 예찬이다. 혹은 이 부분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난 날 박태보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모임을 가진 인물들과 함께 했던 당시에 대한 추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1~4구와 5~8구는 상황적인 대비라고 할 수 있다. 5~6구는 지금 모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박태보의 장례식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정치적인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을 ‘搖落愁’라는 시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7~8구는 박태보의 죽음으로 슬픔과 허전함을 느끼지만 여러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시를 지으며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 시는 이렇듯 앞서 살펴본 시들과 정서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손와 홀로 가장 많은 수인 4구를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시는 대체로 작자의 수에 따라 정형화된 형태로 연구하고<sup>37)</sup> 앞서 살펴본 네 작품이 대체로 정형화된 분련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데에 비해 이 시에서 손와는 그러한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3구부터 6구까지를 지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손와는 좋은 계절에 망자를 떠나보낸 생자들의

36) 박용만은 전주이씨 강화학인들은 연구를 이용하여 祭詩를 지은 특징에 주목하였는데, 이천익, 이영익, 이충익이 평소 가까이했던 죽형 李重海의 죽음을 맞아 지은 <聯句 祭獻納族兄>을 예로 들며 이들이 함께 어울렸던 이중해를 추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라는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았다[박용만(2004), pp. 425-426]. 이런 모습은 문인들에게 연구시가 문자 유희로 소비되지만은 않았음을 의미한다.

37) 이미진은 연구시 창작에 참여한 인원수에 따른 연구의 순서에 대해 분석하였다. 4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다양한 순서로 창작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가장 흔한 경우로 A : (1,2)/(2,3)/(3,4)/(4,1), B : (1,1)/(2,2)/(3,3)/(4,4) 이 두 가지를 들었다[이미진(2019), p. 266].

안타까움을 드러낸 부분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주도적으로 자신과 동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망자를 애도하기 위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또한 4구를 연이어 연구한 것은 자신의 詩才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일 여지로도 볼 수 있다.

이 다섯 작품 외에 『損窩遺稿』에는 연구시에 차운한 <汝良聞喜席次李尙書之翼 聯句韻><sup>38)</sup>과 <又次聯句> 두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劉鎭邦의 聞喜宴에서 남들이 지은 연구시에 차운한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은 내용을 살펴보면<sup>39)</sup> 누군가의 잔치에서 남들이 지은 연구시에 차운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 모두 시회에서 창작된 연구시에 차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밖에 吳道一의 문집인 『西坡集』에 수록된 <西郊別席與趙子直·朴士元·申公獻·崔文叔·沈龍卿·趙祥甫·崔汝久 聯句><sup>40)</sup>는 손와가 참여한 연구시로 1686년 謝恩使의 書狀官으로 발탁된 오도일을 위해 모인 시회에서 趙相愚, 朴泰輔, 申琬, 崔奎瑞, 沈壽亮, 趙儀徵과 함께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사행을 앞두고 지은 연구시라는 점에서 <城東餞席聯句>, <聯句>, <夜飲聯句>와 결이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38) 崔錫恒, 『損窩遺稿』 卷2.

39) 시의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醉後仍呼燭, 良宵好抱關. 清談揮塵劇, 佳句噉毫催. 獻賀盃心凸, 承歡舞影迴. 更看餘慶遠, 蘭玉眼前堆(취하여 촛불을 끄고 보니, 좋은 밤 회포 풀기에도 좋구나. 맑은 이야기에 티끌 전부 사라지고, 좋은 시구에 흰 머리 없어지는 듯하네. 축하주 술잔에 넘치고, 기쁘게 추는 춤 빙빙 도네. 곧 남은 경사 많은 걸 볼 테니, 훌륭한 자제 눈앞에 가득해서이지).”, 崔錫恒, 『損窩遺稿』 卷5.

40) 吳道一, 『西坡集』 卷3, 「燕榭錄」.

#### 4. 損窩 聯句詩의 意義

지금까지 손와의 시회와 시회에서 창작된 연구시 작품들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손와에게 있어 연구시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시회를 통한 관계성과 목적성에 기반한 연구시의 창작이다. 이는 시의 문학적 기능보다 실용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 손와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작품은 교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현전하는 문집의 형태가 애초의 온전한 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손와는 타인이나 집단을 위한 시 창작을 많이 했던 까닭에 현재와 같이 작품들이 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손와는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을 살았던 인물로 중형 최석정과 함께 정계에 진출하여 소론의 중심인물이 되어 당을 이끌었다. 과거 급제 후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삼정승 중에 우의정과 좌의정까지 역임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으나 경종조의 소론4대신으로 신임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에 지목되어 사후 4차례나 삭직될 정도로 정계에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다.

손와는 집안의 정치적 명망과 자신이 지닌 정계에서의 영향을 바탕으로 소론의 인물들과 교유를 이어나갔는데 그러한 교유의 한 형태가 바로 시회이다. 시회 활동의 성격은 크게 창작·정치·오락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詩는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면 서도 시회는 그런 정치색을 희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sup>41)</sup> 손와와 시회를 함께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중형 최석정과 조카이자 소론의 주요 인물로 성장했던 최창대가 있으며,

41) 안대회(2013), 「18세기 시사의 현황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44집, 한국고전문학회, p. 437.



이밖에 조상우, 오도일, 홍수주 등 소론의 명사들이 있다. 이들과의 시회는 표면적으로는 오락과 교유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던 유집일과 연구시를 창작한 사례나 使行이라는 공무를 앞두고 연구시를 창작한 사례, 그리고 소론의 거두였던 서종태가 신임사화의 희생자가 되어 세상을 떠나자 동당의 동료들과 모여 망자를 애도하고 정치적 결속을 위해 연구시를 창작하는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sup>42)</sup> 이렇듯 손와는 시회를 통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동시에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창작한 연구시는 자리를 함께했던 인물들과의 교유를 직접적이고 현장감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손와의 詩文學에 대한 傾倒와 詩才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손와가 지녔던 정치적 위상 때문인지 현재까지 손와의 문학은 연구자들의 관심범위에 들지 못 했다. 그러나 손와의 시첩발문을 보면 그는 스스로 시첩을 제작할 정도로 시회와 당시 창작했던 시 작품에 대해 애정을 지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회가 비록 유희적·정치적 색채를 띠기는 하지만 문학으로 상대방과 감정을 공감하고 교유하는 활동이다. 시첩발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를 회상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손와가 詩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익숙했을 정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詩才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연구시의 창작에서도 손와의 문학에 대한 경도와 시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시는 여러 사람들이 창작을 하므로 각자의 문집에 수록될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체로 한 사람의 문집에 수

42) 18세기가 되면 시회가 발전하여 당색을 같이하는 사람들 간에 詩社를 결성하고 시사의 구성원들이 연구시를 창작하며 관계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보라의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오보라(2017),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 — 聯句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집, 동양고전학회.

록이 되는데 이를 통해 연구시 창작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연구시가 유희성을 지닌 시체이기는 하나 많은 문인들이 대체로 연구시의 창작을 난감해하고 곤란해 했던 것을 보면 손와는 연구시의 창작을 주도할 정도로 연구시를 이해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창작에 자신이 있었거나 적어도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흥성은 韓愈와 孟郊에서 시작되었다. 창작의 어려움은 작법은 서로 다르나 정교함은 서로 같아서 하나로 합쳐 온전하게 되어 자취없이 꺾매고 흔적없이 뚫는 데에 있다. 창작의 절묘함은 재빨리 아름다움을 다투면서도 험한 상황에서 기묘함을 표출하기를 마치 國手가 바둑판을 마주하거나 駿馬가 나란히 달리는 것처럼 하는 데에 있다.<sup>43)</sup>

李晚秀는 이 글을 통해 연구시 창작의 어려움과 잘 된 연구시는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유, 맹교로부터 시작된 연구시는 그 창작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데 짧은 시간 안에 마치 한 사람이 지은 듯이 매 구의 연결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시를 함께 짓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과 압박감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연구시는 창작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손와가 연구시의 창작을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것은 함께 연구를 하는 인물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편하고 가까웠다는 의미와 함께 손와 스스로 자신의 시재를 자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손와의 시 작품 가운데 聯句詩를 대상으로 하여 이 같은 의의를 도출해낸 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손와의 연구시는 한

43) 李晚秀, 『履園遺稿』卷9, 「玉局集」, <題洪竹陰 義浩 尹蓉湖 魯東 聯句卷末>, “聯句之盛, 昉於韓孟, 其難在異曲同工, 融合圓全, 裁縫滅跡, 斧鑿無痕也. 其妙在於急就爭妍, 險境出奇, 如國棋對枰, 良駒比足也.”

계가 분명하기도 하다. 5수라는 제한된 수량은 심도 있는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 같은 한계는 각 시별로 분련 방식에 의한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의 몇 가지 한계와 함께 다소 거칠게 작품들을 분석한 듯하여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 연구가 앞으로 이어질 손와의 연구에 밑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자 료】

- 南阜, 『時庵集』, 한국문집총간 속 128, 민족문화추진회.  
吳道一, 『西坡集』, 한국문집총간 152, 민족문화추진회.  
尹國馨, 「聞韶漫錄」, 『大東野乘』, 민족문화추진회.  
李 瀾, 『星湖僿說』, 한국문집총간 198-200, 민족문화추진회.  
任聖周, 『鹿門集』, 한국문집총간 228, 민족문화추진회.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 【논 저】

- 강필임(2016), 『시회의 탄생』, 한길사.  
김묘정(2020), 「17세기 소론계열 지식인들의 연구시 고찰」, 『석당논총』 78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_\_\_\_\_(2019), 「근륜 최창대의 교유시 연구」, 『인문논총』 76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용만(2004), 「강화학과 연구시에 관한 고찰」, 『한국한시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신민섭(2019), 「조선시대 詩會 序跋 연구 — 詩軸 · 詩帖 · 詩卷을 대상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경호(2009),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14집, 한국국학진흥원.  
안대회(2013), 「18세기 시사 현황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44집, 한국고전문학회.  
오보라(2017),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 — 聯句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집, 동양고전학회.  
이미진(2019), 「聯句詩의 창작 방식과 배경 고찰 — 謙齋 趙泰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4집, 동양고전학회.

원고 접수일: 2020년 12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1년 2월 9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ABSTRACT

---

A Study of Successive Lines of Verse (聯句詩)  
by Choi Seok-hang (崔錫恒)

Yoo, Myeongseok\*

Exchanges between the literati of the Joseon Dynasty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exchange of literary arts, particularly Chinese poetry. When drinking and playing with acquaintances or when departing, poetry was frequently used as a means of communion. Poetry clubs also acted to facilitate communion and one of the poems of Chinese poetry that was utilized was Successive Lines of Verse (聯句詩). Choi Seok-hang (崔錫恒, 1654-1724), from a famous Soron family, was a personage of great political weight to the extent that he is referred to as one of ‘the four ministers of Soron’. He was a bureaucratic literary personage who was active from when he passed the Imperial Examination at the age of 27, in 1680, until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71. While working in government, he interacted with several celebrities in the Soron faction, at the center of which were poetry clubs. Through the works that remain here and there in his collection,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his exchanges centered on poetry clubs, one of the works created by poetry clubs being Successive Lines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

of Verse (聯句詩). This research does not merely end with an examination of the poetry clubs of Sonwa (損窩) and their relation to Successive Lines of Verse, and the aspects of Successive Lines of Verse. It also looks at at Sonwa (損窩)'s Successive Lines of Verse (聯句詩) from multiple angles, as a means of confirming the meaning of the Successive Couplet (聯句詩).

